



7일 오사카돔에서 열린 WBC 한국 대표팀과 일본 한신 타이거즈의 연습경기가 한국의 7-4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마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선의 키스톤’ 김하성-에드먼 물 샬 틈 없는 수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식 평가전 첫판에서 수비 허점을 노출했던 한국 야구대표팀이 하루 만에 짜임새 있는 모습을 되찾았다.

2루수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이를 연속 ‘메이저리그 최고 내야수’다운 몸놀림을 보여줬고, 유격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3루수 최정(SSG 랜더스)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7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 WBC 평가전에서 7-4로 승리했다.

9일 정오 호주와 WBC 조별리그 첫판을 앞둔 한

국 대표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평가전에서 7-4 승리  
이강철 감독 “선수들 준비 마쳐... 좋은 분위기로 도쿄 간다”

국은 이날 마운드에 땅볼 유도형 투수를 대거 투입해 술한 땅볼을 양산했다.

덕분에 내야수들은 다양한 타구를 처리하며 실점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한국은 평가전 첫판인 전날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3개의 수비 실책을 저지르며 2-4로 졌다.

최정이 컨디션 문제로 선발에서 빠져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오지환은 유격수 자리에서 두 차례 실책했고, 경기 후반에는 메이저리거 김하성마저 실책을 남겼다.

평범한 땅볼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던 김하성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타구가 갑자기 튀어 올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조 잔디가 깔린 교세라돔 내야 그라운드와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이강철 감독 내야수들은 하루 만에 적응을 마친 듯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다.

전날에도 호수비를 펼친 에드먼은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다카야마 슌의 타구를 또 한 번 멋진 수비로 처리했다.

재빠르게 달려와 백핸드로 빗맞은 타구를 잡아놓은 뒤, 굳디더가 없는 동작으로 공을 글러브에서 빼

1루에 정확하게 송구했다.

포구부터 송구에 이르는 모든 동작이 끊김이 없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김하성은 전날 실책에 한풀이라도 하듯 “2022년 MLB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다운 수비를 선보였다.

6회 1사 후 하라구치 후미히토의 빠른 타구를 앞으면서 글러브에 가둔 뒤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해 아웃을 잡아내더니, 7회에는 선두타자 사카모토 세이지로의 유격수 쪽 깊숙한 타구를 강력한 어깨로 아웃으로 연결했다.

3일 SSG 랜더스와 연습경기, 6일 오릭스와 평가전 모두 컨디션 난조로 선발에서 빠졌던 최정도 탄탄한 수비를 보여줘 컨디션 우려를 잠재웠다.

일본으로 건너온 뒤 김민재 코치의 함께 집중적

으로 평소 훈련을 소화했던 최정은 5회 2사 후 모리 시타 쇼타의 3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지나가는 타구를 견제해 뒤 몸을 돌려 1루에 던져 아웃을 잡았다.

경기 후 이강철 감독은 “(이번 연습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다 기용했고 준비는 다 된 것 같다”라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서 좋은 분위기로 도쿄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전날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는 실책을 3개나 저질렀으나 이날은 수비가 실책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강철 감독은 “고척돔보다 이곳의 타구 마운드가 길게 떨어지는 것 같아 선수들이 첫날 잘 적응 못한 것 같다”라며 “도쿄돔은 선수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KIA, 한화에 4-9 패... 연습경기 2승 3패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KIA가 7일 일본 오카나와 고진다 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렀다. 스프링캠프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한화전에서 KIA는 초반 마운드 난조로 4-9 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KIA의 2023 캠프 연습경기 전적은 2승 3패가 됐다.

2월 19일 WBC 대표팀과 첫 연습경기를 가진 KIA는 이후 애리조나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와의 두 차례 연습경기를 비 때문에 소화하지 못했다.

또 ‘LA 불시작’ 여파로 2월 28일 오카나와 첫 연습경기였던 한화전도 치르지 못했다.

계획했던 3경기가 무산 되면서 KIA는 5차례 실전에 만족해야 했다.

애리조나에서 열린 WBC 대표팀과의 첫 경기에서 6-12패를 기록한 KIA는 오카나와 첫 실전이었던 1일 삼성전에서는 김도영의 3안타와 김규성의 3점포 등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면서 9-1 승리를 거뒀다.

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임기영-최지민-송후섭-윤중현-김승현-김대유-유승철이 무실점을 합작했고, 김석환의 비거리 140m 대형 홈런포까지 나오면서 8-0으로 이겼다.

5일 다시 만난 삼성을 상대로는 9회 8실점을 하면서 7-11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메디나는 1일 삼성전에 이어 두 번째 실전에 나서 3이닝을 소화, 2피안타 1볼넷 3삼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한화와의 마지막 캠프 연습경기에서는

‘루키’ 윤영철이 프로의 매서운 맛을 봤다.

이날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윤영철은 문현빈, 김태연, 채은성을 상대로 1회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2회에는 첫 타자 오그레디를 상대로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노시환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이진영과 장진혁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했다. 그리고 박상언의 희생플라이로 두 번째 점수를 내줬다.

3회에는 큰 것 한방을 맞았다. 2사 1루에서 오그레디를 상대로 던진 직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4실점을 하고 물러났다.

이날 윤영철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37km를 기록했다. 윤영철은 커브(17개·116km), 슬라이더(6개·124~128km), 체인지업(5개·122~124km)도 구사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윤중현도 1이닝 5피안타 1볼넷 1탈삼진 5실점으로 고전하면서 일찍 분위기가 한화로 기울었다.

한편 친정팀 한화를 상대로 이적 후 첫 실점을 치른 변우혁은 강재민에게 투런포를 뽑아내는 등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고, 김규성도 연습경기 두 번째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캠프 실전을 마무리한 KIA는 8일 캠프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다. 9일 귀국길에 오르는 선수단은 10일 휴식을 취한 뒤 13일 시범경기 개막을 준비한다.

KIA는 시범경기에 앞서 한 차례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부족했던 실점을 채울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PSG 네이마르 발목 수술 ... “더 강해져 돌아오겠다”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의 슈퍼스타 네이마르(브라질·사진)가 결국 발목 부위를 수술해 남은 시즌을 뛰지 못할 전망이다.

PSG는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의 의료진이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대 재건 수술을 네이마르에게 권했다. 이와 관련해 논의한 모든 전문가가 이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마르가 카타르 도하의 한 병원에서 며칠 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완치에 3~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2023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의 마지막인 38라운드 오는 6월 3일에 열린다. 사실상 네이마르는 잔여 경기에 뛸 수 없게 된 셈이다.

네이마르가 회복이 빠르다면 올 시즌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라 할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11일 예정된 결승까지 무탈하게 진출해야 하는데, PSG는 현재 UCL 8강 진출에도 머그머리가 긴 상황이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와 함께 PSG의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는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는 지난달 20일 LOSC 릴과 리그 경기 중 오른 발목을 다쳤다.

수술을 받게 된 네이마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짧게 썼다.

/연합뉴스

## 우승 상금 58억원

###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막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뜨겁게 달구는 ‘빅3’의 세계랭킹 1위 싸움이 이번에는 최다 상금 대회에서 벌어진다.

세계랭킹 1~3위 람(스페인),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폰트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한다.

이 대회는 PGA 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큰 상금이 걸렸다. 총상금이 2500만 달러(약 324억8750만원)에 이르고 우승 상금이 무려 450만 달러(약 58억4865만원)다.

올해 치열한 세계랭킹 1위 경쟁을 이어가는 람, 셰플러, 매킬로이가 저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람은 세계 1위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간발의 차이로 놓쳤던 매킬로이와 셰플러는 우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 탈환을 노린다.

최고 상금이 걸린 초특급 대회인 만큼 출전 선수 명단은 화려하다.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 43명이 출전한다.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 이번 시즌 PGA 투어 대회 챔피언 14명이 전원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2017년 이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김시우(28)가 주목받는다. 임성재(25)도 전문가들이 우승 가능성이 큰 선수로 꼽았다. 최근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한 김주형(21)의 반동도 기대된다.

/연합뉴스